

전쟁 중에도 수업받았는데... 학부모 분노

공현철 기자

“6·25 전쟁 중에도 학생들은 학교에서 수업을 받았습니다.”

학교 재단 측과 토지주의 갈등으로 등교가 중단된 전주예술중·고등학교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단전·단수로 인해 등교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학교 이사장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학교 학생의 학부모라고 밝힌 청원인은 “학교 측이 진입로와 일부 시설을 사유지임에도 토지주 허락 없이 사용해 왔고 법적 분쟁 끝에 전기, 상수도시설 등을 사용 못 해 정상 등교가 불가능해졌다”며 “450명의 전주예술중고 재학생이 겪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알리자 글을 올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법인은 토지주와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안일한 태도로 일관해 오다가 결국 등교중단이라는 사태까지 오게

전주예술중고 등교중단 사태 해결 촉구 글 국민청원 게재
“관리·감독하고 지도해야 할 전북도교육청 그동안 뭘했나”
헌법서 보장하는 ‘교육의 의무’ 불이행 누가 책임 질 것인지



했다”며 “교육을 받아야 할 학생들에게 심각한 학습권 침해가 발생했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교육의 의무’ 불이행을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묻고 싶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6.25 전쟁 중에도 학생들은 학교에서 수업을 했다”며 “이번 사태는 학교 이사

장과 전북도교육청, 완주교육청의 안일한 대처와 무책임하고 무능한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학교는 지난 달 18일부터 재량휴업에 들어갔다. 휴업은 학교 측이 개교 때부터 무단으로 사용해 온 진입로 및 일부 시설 대해 토

지주가 최근 ‘재산권 행사’를 하면서 시작했다. 법적 다툼을 벌여 승소판결을 받은 토지주가 땅 반환과 시설 원상복구 등을 학교 측에 통보했지만 학교 측은 ‘여건상 이행이 어렵다’고 했다. 이에 토지주는 단전·단수에 이어 출입문 주변에 철조망까지 설치했다. 결국 학교 측은 재량휴업을 결정하게 됐다.

애초 휴업은 최초 2주였으나, 5주로 늘어났다.

상황이 악화되자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11일부터 학습권 보호를 위해 원격수업을 지원하고 있다.

청원인은 “예술중고 학생들에게는 실기와 실습이 매우 중요하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실습수업은 이뤄졌다”며 “그동안 학교 측과 토지주만의 문제로 간주하고 수수방관한 전북도교육감, 완주교육지원청이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주지법은 지난 24일 학교 재단이 토지소유자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동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따라서 토지분쟁으로 막혔던 전주예술중고등학교 통학로는 일단 열리게 됐다.

전북 아동학대 신고 급증

전북지역 아동학대 신고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318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80건 보다 138건(76.7%p) 증가한 수치다.

아동학대 신고 증가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파악됐다. 올해(1~8월) 총 1만7,379건이 접수, 지난해(1만3,313건) 보다 68%p 올랐다. 아동학대 가해자는 82%가 부모였다.

신고가 늘어난 원인은 지난해 10월 이른바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같은 기간 전북 가정폭력 신고 역시 2,416건에서 2,575건으로 6.6% 가량 늘었다.

이렇게 전북경찰청장은 “가정 내 폭력과 학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며 “사회적 약자가 보다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현철 기자

2020년 전북 사랑의열매 모금 및 배분

247억 1천만원	254억 6천만원
모금액	배분액

▲ 전북지역에서 무여전 상금은 전액 전북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사회복지현장 등으로 지원되었습니다.
▲ 2020년 중앙회 지원금 : 46억 9천만원

기부상담 063-282-0606
ARS기부 060-700-0606
홈페이지 jb.chest.or.kr
▶ 참여하기

보건복지부 전라북도 전라북도교육청 사랑의열매



학사교류 본격화... KNU10 공동학위제 포럼

연구 성과 공유, 학사교류 필요 요건·실행방안 점검

국가거점국립대 간 학사교류가 본격화된다. 이를 위해 거점국립대 KNU10은 ‘공동학위제도 정착 방안’을 주제로 정책연구 포럼을 열기도 했다.

28일 전북대에 따르면 이번 포럼은 거점국립대 간 연계 강화를 통한 학사교류 활성화와 모색에 방점이 찍혔다. 온·오프라인 포럼에는 각 거점국립대 총장과 학사교류 실무담당자,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충남대 송영신 교수는 ‘국가거점국립대학교 학사교류 현황’을 짚었다. 이어 제주대 양창용 교수는 ‘국가거점국립대학교 학사교류 니즈 분석’을, 부산대 류광열 교수는 ‘국내 학사교류 사례’를,

전북대 박효용 교수는 ‘KNU10 학사교류 강화 방안’ 등을 각각 발표했다.

이중 박 교수는 KNU10 통합 가상캠퍼스(가칭 한국대학교)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며, △각 대학 사이 바캠퍼스 시스템 통합 △메타버스를 활용한 가상강의실 △교양 강의에서 전공강의로의 확대 등을 제시했다. 또 ‘국립대연계 교류활성화법’ 제정을 통해 재정지원근거 등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대 김동원 총장은 “정책연구를 통해 국가거점국립대 교육역량 제고와 연합체계 구축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정선 기자

10주년 남부시장 청년몰 ‘새로운 도약’

전주 남부시장장변영회, 청년몰 개장 10주년 행사 개최
테마 공간·포토존 마련, 문화공연 등 다채롭게 꾸며져

전통시장 활성화 성공 모델로 각광을 받은 전주 남부시장 청년몰이 개장한 지 10주년을 맞았다.

전주시와 전주 남부시장장변영회(회장 하현수)는 26~27일 양일간 남부시장 청년몰 및 하늘정원에서 ‘남부시장 청년몰 개장 10주년 행사’를 개최했다.

지난 10년 동안 남부시장 청년몰을 성원해준 시민과 관광객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기획됐다. 이번 행사는 캠퍼링, 정원, 놀이공원, 뉴트로 등 4가지 주제로 된 테마 공간과 포토존이 마련됐다. 각종 체험행사, 지역 청년 예술인과 함께하는 문화공연, 영화 상영, 포럼 등 다채로운 콘텐츠로 꾸며졌다. 첫 날은 ‘청년몰 2.0 새로운 도약, 다시 10년을 기약하다’를 주제로 한 청년몰 포럼이 운영됐다. 포럼에서는 남부시장 청년몰의 지난 역사를 되짚어본 뒤 지속가

능한 청년몰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향후 1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은 지역 청년 예술인과 함께하는 어쿠스틱-펍크 공연도 열렸다.

이번 행사는 전주 골목상권 드림축제와 연계 진행돼 남부시장과 청년몰이 함께하는 스탬프 투어와 오징어게임 등 부대행사도 펼쳐졌다.

청년몰 상인들의 참여로 진행된 도자기 공예품과 전통매듭(소원팔찌), 도시락 케이크 만들기 체험 행사들도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끌었다.

전주 남부시장장변영회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남부시장 청년몰을 사랑해주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한마음이 돼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위로와 힐링을 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복정권 기자

전북도교육청 ‘학사운영 내실화 기본 방향’ 안내

전북도교육청은 ‘수능 이후 및 학년말 학사운영 내실화 기본 방향’을 각 학교에 안내했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고3의 경우 진로상담과 자기개발지원,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등 학생 중심 교육활동이 추진된다. 또 수능성적 통지일 이전에는 등교수업을, 이후에는 등교·원격수업을 병행하도록 안내했다.

실기·면접·논술고사 등 준비를 위한 입시학원 수강 및 승인받지 않은 체험활동 등에 대한 편법적인

출결처리와 교외 체험학습 신청 유도·강요 등은 철저히 금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년말을 맞아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반영한 교과 및 체험활동 연계 수업을 운영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학교 여건과 학생 특성을 고려해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경제교육, 자기개발, 진로진학 등 온오프라인 학사 운영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했다. /공현철 기자

독자와 함께 만드는 열린 신문,
새전북신문입니다.

구독신청 063) 230-5712